200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 ①	2. ⑤	3. ③	4. ③	5. ①	6. ⑤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④	20. ③	21. ③	22. ①	23. ④	24. ③
25. ②	26. ④	27. ③	28. ④	29. ①	30. ③	31. ④	32. ②
33. ④	34. ⑤	35. ⑤	36. ②	37. ⑤	38. ①	39. ⑤	40. ④
41. ①	42. ②	43. ④	44. ⑤	45. ⑤	46. ⑤	47. ①	48. ⑤
49. ⑤	50. ②	51. ④	52. ②	53. ④	54. ①	55. ②	56. ③
57. ④	58. ⑤	59. ②	60. ③				

[듣기 대본]

[1] 이제 두 학생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리듬감을 살려서)

마먀머며하니 말은 가자 꼬리치고

임은 잡구 낙루한다

바뱌버벼하니 밥은 있건마는

벗이 없어 못 먹겠네

사샤서셔하니 사신 행차 바쁜 길에

점심참이 늦어 간다

남학생 : 지금 뭐하는 거야? 무슨 주문 외니?

여학생 : 그렇게 들리니? 충청도 민요 중에 '한글 풀이 노래'라는 것인데, 재미있지 않니? (천천히) 마먀머며, 바뱌버벼, 사샤서셔, 한글 자음을 모음과 결합시켜 재미있게 발음하도록 만들었잖아.

남학생 : 그것 참 듣고 보니 재미있네. 무슨 뜻 모를 주문인 줄 알았더니 그런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여학생 : 그럼 더 들어봐. 마먀머며는 '말'과 연결되고, 바뱌버벼는 '밥'과 연결되며, 사샤서셔는 '사신 행차'와 연결되어, 같은 소리가 첫음절에 반복되지? 그러니까 말의 리듬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니?

남학생 : 정말 그렇네.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니, 놀라운 걸.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 표현 중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들이 자주 보내는 문자 메시지 중에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건 어때?

1.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이 대화에서 여학생이 예로 들고 있는 민요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이 이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남학생이 제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의 예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이어야 한다. ①은 '월요일'에 이어지는 말은 '월'로 시작하고, '화요일'에 이어지는 말은 '화'로 시작하는 등 전형적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의 사례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⑤는 맨 앞에 있는 글자만을 이으면 '바보속았지'라는 말이 되므로 운(韻)을 이용한 글짓기 - 일종의 삼행시 짓기와 같은 -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는 아니다.

[2] 이번에는 과학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의 건조한 황토 지대에서 먼지와 같은 미세한 흙이 강한 바람에 의하여 넓게 퍼져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다가 상층의 편서풍에 의해 한반도 부근까지 운반되어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고의 사막 지대와 만주, 황하 중류의 황토 지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대부분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 지역,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황사 현상은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나타나는데, 발원지에서 연중 20회 정도 발생하며, 그 중 10~30%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황사 현상은 주로 봄에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겨울 동안 얼어 붙어 있던 흙이 녹아서 황사가 발생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겨우내 얼어 있던 건조한 흙이 녹으면서 잘 부서지게 되고, 그 결과 공기에 떠다니기 쉬운 20㎛이하 크기의 모래 먼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름에는 비도 내리고, 또 가을까지는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모래 먼지가 묶여 있지만 겨울을 지나면서부터는 모래 먼지가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요즘 들어 황사 현상이 잦아지는 것은 중국 본토에 메마른 황토 사막 지역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16억~20억톤이나 되는 비옥한 토양이 쓸려가고, 또 식물이 성장할 지표층이 파괴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에 걸쳐 삼림 감소, 표토 유실과 모래 이동 등으로 사막화된 토지가 매년 약 1천5백㎢씩 확대되고 있으며 지금은 중국 총 국토 면적의 11.4%가 사막화되었다고 합니다.

2. **[출제 의도] 자료 활용 방안**

이 강연은 주로 황사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황사의 피해나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사막을 녹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강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3] 이번에는 텔레비전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자1) : 오늘은 조기 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조기 유학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 유학에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자1(여자2) : 저는 제 딸을 조기 유학 보낸 사람입니다. 청소년의 조기 유학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능력 없는 학생에 국한된 얘기에요. 우리 나라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조기 유학을 가서도 성공합니다.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엘리트가 되어 훗날 우리 나라에 돌아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조기 유학은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게 아닐까요? 물론 엘리트 위주의 교육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조기 유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사회자 : 사회 발전을 위한 엘리트 양성에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토론자2(남자) :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조기 유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 유학을 간 청소년들이 엘리트가 되어 우리 나라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인재를 해외로 유출시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기 유학밖에 없습니까? 우리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왜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잠깐 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트 양성이 과연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엘리트, 엘리트 하시는데,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엘리트 양성과 같은 지적인 요소보다도 올바른 인성의 형성이 더 근본적인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조기 유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 **[출제 의도] 이어질 내용의 추리**

남자 토론자의 마지막 대사를 보면, 남자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성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자 토론자의 입장에 따르면, 엘리트 양성을 위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자 토론자의 주장은 당연히 반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박의 초점은 엘리트 양성 위주의 교육은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자 토론자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4]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문제지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들 웅성웅성하다 조용해진다.)

자, 오늘은 도서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요즘은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국내외 유명 도서관의 도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고 싶다고 해 봐요.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찾아야겠죠? 거기서 자료 찾기 항목을 찾아 실행시키면 검색 창이 뜰 거에요. 여러 항목이 나오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검색 창에 나와 있는 항목들에서 찾고자 하는 도서의 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먼저 '자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화살표를 누르면 단행 자료와 연속 간행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행 자료는 한 번 발행된 자료이고 연속 간행물은 잡지처럼 정기적으로 간행된 자료를 말하죠. 다음의 '표제'는 책의 제목을 의미해요. 그 다음의 '키워드'는 주제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든 도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나머지 '저자명'은 책을 쓴 사람을 의미하고 '발행년도'는 도서가 발행된 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맨 아래의 '청구 기호'와 '분류 기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매긴 고유의 번호를 의미하는데, 자신이 찾고자 하는 도서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도서를 검색해 보는 연습을 해 볼까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대중 문화와 관련된 잡지 목록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어떤 항목에 조건을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조건을 입력해야할 항목을 검색 창에서 골라보세요. 다시 한 번 말하겠어요. 1970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대중 문화와 관련된 잡지 목록을 검색하는 거에요.

4.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도서 검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대중 문화와 관련된 잡지 목록'이다. 따라서 일단 '잡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항목이 필요하고, 주제가 '대중 문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항목이 필요하며, 1970년대라는 간행 시기를 입력하기 위해 ⓔ항목이 필요하다.

[5~6] 이번에는 기자와 작가의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남자) : 이번에 한일 월드컵에 맞추어, 여성 작가가 쓴 축구 소설이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를 모시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여자) : 네, 안녕하세요.

기자 : 우선 여성이 축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언제부터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작가 : 제 고향이 본래부터 축구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내의 내로라하는 축구 선수 중 제 고향 출신도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 경기를 보며 자랐고, 그러다 보니 축구는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기자 : 그래도 실제로 축구를 해 본 적은 없으실 것 아닙니까?

작가 : 네, 어렸을 때 공을 가지고 놀기는 했지만 축구 경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축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설을 쓰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축구 소설이라는 특성상, 그래도 직접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작가 : 사실 축구를 소재로 하고는 있지만 제 소설의 근본적 주제는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정열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축구는 정열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는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열의 스포츠입니다.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마피아와 독재자를 열광시키는 등 인간의 광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스포츠지요. 실제로 1969년에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사이의 지역 예선이 급기야 양국 간 전쟁으로 비화된 예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제 소설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지요.

기자 :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축구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어떻습니까?

작가 : 과거 축구가 주로 남성이 하는 스포츠였다는 점에서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여성 축구 선수들도 많아졌고, 여성 축구 리그까지 생겨났습니다. 축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는 지나간 거죠. 또 남성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를 실제로 하지 않고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에 몰입하고 있을 때보다는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그 대상이 지닌 본질을 잘 파악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5.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에 대한 비판**

기자는 실제 소설의 내용보다는, 여자인 작가가 어떻게 축구에 관한 소설을 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축구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깔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이러한 선입관을 지닌 채 대담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6.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작가는 주로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인간의 정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축구는 바로 인간 정열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스포츠이다.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정열의 어두운 측면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7. **[출제 의도] 연상의 적절성 평가**
'부두 끝에 서 있는 등대'에서 '등대'는 '인도', '안내', '희망' 등의 의미를 상징한다. 또 그것이 '부두 끝에 서 있'다는 것에서는 '고독' 등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대'에서 '정열'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다음 단계의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

8. **[출제 의도] 논거의 적절성 평가**
성별·계층별 흡연 인구의 현황을 알려주는 통계 자료는, 전체적인 흡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특별히 청소년들에 금연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쓰려는 글의 주제가 '청소년 흡연'에 관한 것이므로,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자료보다는 청소년들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9. **[출제 의도] 표현의 적절성 평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은 '물정을 잘 모르고 겁 없이 대든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 속담은 홍보물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0. **[출제 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②에서는 선배의 입장에서 말이나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에 힘쓸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입생 시절을 '신록 같은 시절'에, 말이나 생각만을 앞세우는 행태를 '빈 수레'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시상의 흐름에 있어서도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은 1행과 2행에서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③, ④, ⑤는 충고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11. **[출제 의도] 자료의 해석과 활용**
[자료3]의 신문 기사는 텔레비전 시청이 가져오는 폐해, 텔레비전 중독 현상의 의미, 텔레비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③은 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계획이다.

12. **[출제 의도] 퇴고의 적절성 평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의 '일상'은 적절한 단어이다. 따라서 '일상'을 '현상'으로 바꾸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 (13~17) 지문 연구**
(가)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 6·25 당시 피난지에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을 때, 시적 화자는 무등산을 보며 삶의 의연한 자세를 발견해 낸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비록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들도 저 무등산처럼 의연하게 살아가자고 당부하고 있다. 가난이 결코 인간의 본성을 다 가릴 수는 없으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할지라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의연하게 버텨내야 함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나) 김종길, <설날 아침에> :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잔잔한 목소리로 설득하고 있다.

13. **[출제 의도] 작품들의 공통적 특질 파악**
(가), (나)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출제 의도] 해석의 적절성 평가**
(가)의 화자는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옥돌' 같이 묻혔다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가시덤불 쑥구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는 점과, '옥돌'은 맑고 깨끗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구절은 어떠한 고통에 처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본성을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청태'는 푸른 이끼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를 지키는 삶의 태도나 의연한 자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옥돌에 끼인 청태'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오답 피하기]
④ <보기>에서 시인은 '당시의 가난과 굶주림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는 지어미와 지애비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화자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시인 자신의 다짐으로도 볼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의도의 추리**
(나)의 5연과 6연을 보면 시적 화자는, '오늘 아침 / 따뜻한 한 잔 술과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3연과 4연에서 보듯이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는 비록 작더라도 '꿈'과 '희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런 대로'라는 말 속에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런 현실마저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것이다.

16. **[출제 의도] 상황의 유사성 파악**
㉠에는 내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면서 따가운 햇살을 이겨내는 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③과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①에서는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며, 즐거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종소리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에서는 '밤'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곧은 소리'를 내는 '폭포'의 저항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7.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가)에서 '가시덤불 쑥구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에서 말하는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과 그 의미가 통한다.

*** (18~21) 지문 연구**
출전 : 이헌창, [시장 못지않은 호혜의 역할]
개관 :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자원 분배 체계로서 '시장'과 '재분배'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호혜(互惠)'를 강조하고 있다. '호혜'는 따뜻한 인간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글쓴이는 호혜가 건전한 시민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 하면서, 기부와 봉사 같은 관행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18.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셋째 단락에 '시장은 소득 분배의 형평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실패했다.'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시장이 완벽한 자원 분배 체계로 자리잡았다.'라고 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19. **[출제 의도] 논리 전개 방식의 파악**
이 글의 시작 부분에는 '시장', '재분배', '호혜'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호혜'의 특성을 다른 두 개념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분배 체계의 핵심이 되는 시장의 한계를 말하면서, 호혜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분배 체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호혜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가치를 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③ 이 글은 '호혜'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 가치를 밝힌 글이지, 대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한 글은 아니다.

20. **[출제 의도] 사전적 의미 파악**

'형평(衡平)'의 사전적 의미는 ③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대치(對峙)'이고, ②는 '균질(均質)'이며, ④는 '평행(平行)'이다. 그리고 ⑤는 '평형(平衡)'이다.

21.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보기>는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보도하고 있는 신문 기사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글쓴이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③은 '재분배'에 입각한 대책이고, 나머지는 '호혜'에 입각한 대책이다.

*** (22~26) 지문 연구**

출전 : 김태길 외, [삶과 일]

개관 :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윤리보다는 사회의 기본 구조나 체제의 윤리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그 이유로, 개인과 집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이 공정해야 한다는 점,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개인의 성격 형성, 잠재적 능력의 발휘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2.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이 글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조차도 고정된 자연의 혜택만으로 볼 수 없고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①은 사회 기본 구조의 윤리성이 중요시되어야 할 이유와 관련이 없다.

23.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나)의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못하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의로운 행위도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에 나타난 지주의 행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의롭다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기본 구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히려 그릇된 사회 구조를 호도(糊塗)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24.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윤리의 문제를 사회의 기본 헌장에 대한 합의라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개인들에게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자유주의적 윤리관의 핵심은 ③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5.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 '기반'은 '어떤 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바탕으로 작용하는 것'의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이 '모태'이다.

26. **[출제 의도] 논거의 적절성 판단**

④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예외적 개인'은 ㉡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 등이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의 논거가 될 수 없다.

*** (27~31) 지문 연구**

출전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개관 : 이 작품은 장돌뱅이의 인생을 그린 작품이다. 서정적인 배경 속에서의 낭만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남과 헤어짐, 혈연, 정착과 유랑, 남과 여 등과 같은 인간 삶의 보편적 요소를 그 속에 녹여내고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충줏집을 매개로 허 생원과 동이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다시 나귀를 매개로 이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27. **[출제 의도] 새로운 장면의 추리**

<중략> 이후를 보면 동이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동이는 '아비와 어미'를 들먹이는 허 생원의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홀어미 밑에서 자랐다는 동이의 말을 통해 추리해 볼 때, 자신을 훈계하는 허 생원에게서, 어머니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남자 어른으로서의 면모도 느꼈을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술집에서 허 생원에게 대든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는 모두 추리가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동이가 장돌뱅이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내용이 본문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는 추리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28. **[출제 의도] 장면에 대한 사실적 이해**

㉮ 부분은 시간에 따른 사건의 순서나 발화의 주체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장면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건의 순서나 발화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이다. '그 놈에게는 그게 약이야.'라고 말하면서 난처한 상황을 얼버무리고 있는 것은 허 생원이 아니라 조선달이다.

29. **[출제 의도] 구성 요소의 작품 내적 기능 파악**

동이가 술집을 뛰쳐나간 뒤, 허 생원은 동이에게 너무 심했다는 자책을 느끼고 있었고, 동이도 허 생원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마침 '각다귀'들이 허 생원의 나귀를 괴롭히는 장면이 동이의 눈에 띄고 동이는 스스럼없이 허 생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로 보아 '각다귀'들은 서먹서먹해진 허 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출제 의도] 관용적 표현의 이해**

허 생원은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북받쳤을 것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이러한 심리를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가슴이 뜨끔하다'는 '몹시 놀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31. **[출제 의도] 심리의 추리**

허 생원이 주춤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야, 저 놈의 짐승이'라는 아이들의 말 때문이다. 그리고 허 생원은 이미 술집에서부터 늙은 자신이 충줏집을 마음에 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허 생원이 ㉡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나귀와 자기가 모두 늙은 주제에 암샘을 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나귀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 (32~36) 지문 연구**

출전 : 원동석, [근대 미술 60년의 좌표]

개관 : 이 글은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우리 누드화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예술 사조의 수용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하나의 예술 형식은 특정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형성되며, 그 속에는 형식 나름의 고유한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예술 형식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예술 형식이 지닌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형식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면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32.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글쓴이는 '김인승'의 그림은 특정한 수요층의 요구에만 영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 정서를 파고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진술하는 ②는 이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33. **[출제 의도] 숨은 정보의 추리**

본문에는 남녀 간의 애정이나 성적 욕망에 대해 조선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사회에서 신윤복의

그림이 호응을 받았다는 점은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남녀 간의 애정이나 성적 욕망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감정의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34.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이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술의 형성과 예술 사조의 수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다. 하나의 예술 형식은 특정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형성되며, 예술 형식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이면의 것들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화가들은 누드를 통해 현실을 표현하지 못했고,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5.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이 글에서 주로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 태도이다. 밸런타인데이는 원래의 고유한 의미를 잃고 그 형식만이 수입된 경우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6. **[출제 의도] 비유의 원관념 파악**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사하는 이국산 화초는 수입된 예술 양식이다. 거기에서 풍토는 우리의 문화적 바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온실은 특수한 수요층을 의미하고, 우리의 산야는 우리의 문화 풍토를 뜻하게 된다.

*** (37～41) 지문 연구**

출전 : 유치진 원작 [토막], 서울예술대학 공연 대본

개관 :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고통 받은 민중의 현실을 그대로 그려내려 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근대극으로 꼽힌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일본에 간 명수에게 유일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명서네 일가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명수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받게 되는 절망과 충격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7. **[출제 의도] 작중 상황의 이해**

이 글에서 명서 처는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을 보이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명서 처는 오로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아들의 행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심적인 여유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부분의 금녀 대사 뒤에 나오는 명서 처의 대사도 아들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안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 **[출제 의도]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

'토막'은 땅을 파고 거적 따위를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당대의 궁핍한 농촌 현실을 상징하며, 동시에 인물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39. **[출제 의도] 대사의 기능과 의미 파악**

㉠은 근본적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대사이다. 금녀는 오빠의 행위가 지닌 정당성을 말하고 있으며, 의문문을 자주 구사하여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려 한다.

40. **[출제 의도] 구성 요소의 작품 내적 기능 파악**

주어진 상황에서 '바람 소리'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치이다. 그것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이며, 동시에 극적 전개에 공포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41. **[출제 의도] 무대 형상화의 이해**

이 글에서 '이웃 여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인물들의 대사를 유도하는 등의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웃 여자'는 명서네 가족의 치지와 심리에 공감하고 이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웃 여자'가 냉소적인 연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토막'은 궁핍한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의 비참함, 빈곤에서 오는 절망감,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나 벗어날 수 없는 데서 오는 좌절감 등이 극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극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둠침침하고 지저분한 배경을 통해 궁핍한 생활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인물들의 복장이나 표정도 이에 어울려야 할 것이다. 인물의 성격과 관련지어 명서처는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야 하며, 명서는 심신이 쇠약한 인물로 설정해야 한다.

*** (42～46) 지문 연구**

출전 : 권영명, [지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광합성]

개관 : 이 글은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광합성의 의의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연역적인 논리를 통해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설명한 뒤,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2. **[출제 의도] 핵심 정보의 파악**

이 글은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 광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광합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 에너지는 유기물을 통해서 얻을 수 밖에 없다. → 모든 유기물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광합성은 지구의 생명체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43.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넷째 문단의 뒷부분을 보면, 광합성에 의해 소비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0.04%에 불과하며, 이렇게 소비되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동물의 호흡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이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4.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모든 생명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나타난 인간은 식물을 파괴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로 보아 <보기>에 나타난 인간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5. **[출제 의도] 개념 간의 관계 파악**

ⓐ와 ⓑ는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즉 ⓐ를 위해서는 ⓑ가 필요하고, ⓑ를 위해서는 ⓐ가 필요한 관계인 것이다. ⑤에 나타나 있는 나비와 꽃도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오답 피하기]

①의 '연극'과 '예술'은 상하 관계이며, ②의 '범죄'는 원인이요 '처벌'은 결과가 된다. ③의 '시내'와 '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며, ④의 '축구'와 '야구'는 대등 병렬의 관계에 있다.

46.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추리**

㉡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은 결국 광합성의 효율성을 배워서 인간의 에너지 개발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의 앞에서는 광합성이 햇빛의 일만 분의 일만을 사용하면서도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을 통해, 광합성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 구체적 내용은 광합성의 원리와 이치를 배워 인간의 에너지 개발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 된다.

*** (47～51) 지문 연구**

출전 : 허균, [홍길동전(洪吉童傳)]

개관 : 이 작품은 우리 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서, 봉건 사회가 안고 있는 적서(嫡庶) 차별의 제도적 모순과 사회적 비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또한 영웅적 인물의 제시와 전기성(傳奇性)을 바탕으로 한 사건 전개 등에서 고대 소설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 준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해인사의 재물을 탈취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장면이다.

47.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이 작품은 고전 소설답게 시간적 순서에 따르는 순행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사건의 서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 글은 주인공 '길동'의 활약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사건 중심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인물의 심리변화는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택하고 있지, 1인칭의 시점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자연 배경에 대한 묘사도 거의 없을뿐더러, 그것을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전혀 없다.

48.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해인사의 중들은 홍길동에게 재물을 빼앗겼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인사의 중들은 재물을 빼앗기는 순간 '원통하다는 소리'만 지른다. 따라서 해인사 중들이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 반성하는 반응은 이 글에서 추리할 수 없다.

49. **[출제 의도] 사건 전개의 이해**
관군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은 홍길동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수'가 도망하여 관가에 해인사의 재물이 탈취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홍길동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마치 홍길동이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건 전개 과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50. **[출제 의도] 한자 성어의 이해**
활빈당의 당원들이 재물을 들고 나갈 때 해인사의 중들은 꼼짝 없이 당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51. **[출제 의도] 의도의 추리**
<보기>는 허균의 '유재론(遺才論)'의 일부분으로서, 적서 차별에 의한 사회의 병폐를 적고 있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홍길동이 왜 활빈당의 당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시의 사회가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52~55) 지문 연구**
출전 : 이용주, [언어의 체계, 구조, 기능]
개관 : 언어의 기능은 크게 표현의 기능, 감화적 기능, 친교적 기능, 표출적 기능,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으로 나뉜다. 이 글은 다섯 가지 언어의 기능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52.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언어의 감화적 기능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라는 문장이 담화 형식으로 보면 서술이지만, 그 기능은 감화적 기능임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언어의 기능과 담화 형식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언어의 다섯 기능을 구체적 발화 상황에서 파악해 내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나'가 '형'에게 한 "이제 자러가자."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말을 받아들여 행동에 옮긴 것으로 감화적 기능에 속한다.

54.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의 적용**
글의 특성 및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이해 방법을 생각해 내는 문제이다. 이 글은 언어의 다섯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각 기능의 중요도를 비교 평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5.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에서 '옮기다'는 들은 내용을 행동이라는 다음 단계로 진행시킨다는 문맥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전 풀이 중 '어떠한 일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다'와 관련된다.

*** (56~60) 지문 연구**
(가)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여기서는 번잡한 속세를 떠나와도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기에 여유를 가질 수 없다고 노래한 부분을 수록하였다.
(나)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서로 헐뜯는 세속과 절연하고 자연에 은거한 은둔자의 노래이다.
(다) 이현보, <어부가(漁父歌)> : 세속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노니는 흥취를 노래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엿보이고 있다.

56. **[출제 의도] 해석의 적절성 평가**
(가)(나)(다) 어느 작품에서도 자연물의 속성에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은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다)에 나타난 자연은 일상적 현실과는 구별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갑의 첫 번째 진술은 적절하다.

57. **[출제 의도] 정서의 유사성 추리**
(가)에서 화자는 시간의 부족을 느낄 정도로 자연을 즐기는 기쁨에 빠져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④이다.

58. **[출제 의도] 발상 및 표현**
(나)에서 글쓴이가 시비로 다툼만을 벌이고 있는 속세에 대해 느끼는 환멸은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이다. 작가는 이러한 물소리를 보는 순간 저 물소리로 속세의 시비 소리를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작가의 내면이 사물에 투사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마치 시적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다.

59. **[출제 의도] 생략된 내용의 추리**
(다)의 넷째 연에서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보아 생략된 부분에 가장 어울리는 구절은 ②이다.

60. **[출제 의도] 함축적 의미 파악**
ⓐ, ⓒ, ⓓ는 자연을, ⓑ와 ⓔ는 세속을 각각 의미한다.